

30대 그룹의 2012년 협력사 지원실적 및 2013년 지원계획 분석

2013.6.28

목 차

< 요 약 >	5
I. 조사 개요	7
1. 조사목적	7
2. 조사대상	7
3.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7
4. 조사내용	7
II. 조사 결과 : 30대 그룹의 2012년 협력사 지원실적 및 2013년 지원계획	8
1. 30대 그룹의 협력사 지원규모	8
2. 30대 그룹의 분야별 2012년 협력사 지원실적 및 2013년 지원계획	9
3. 시사점 및 제안사항	12
(1) 시사점	12
(2) 제안사항	12

■ 이 자료는 사업팀 윤지훈 연구원이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6336-0618 FAX : 02-3771-0143 E-mail : jhyun@fkilsc.or.kr

요약

1. 조사 결과 : 30대 그룹의 2012년 협력사 지원실적 및 2013년 지원계획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3.2.8~2013.3.29(50일간)
- 조사대상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2013.1) 중 상위 30대 그룹(위크아웃·공기업 제외)
- 조사방법 : 주관식 서술을 통한 설문조사 실시(E-mail 조사와 전화조사 병행)

(1) 30대 그룹의 협력사 지원규모

- 지난해 30대 그룹은 협력사에 2011년 대비 1.4% 증가한 1조 5,571억 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3.8% 증가한 1조 6,15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됨
 - 올해 30대 그룹이 협력사에 1조 6,156억 원을 지원함에 따라 협력사 지원실적은 2010년 8,922억 원, 2011년 1조 5,356억 원, 2012년 1조 5,571억 원에 이어 3년 연속 1조 5천억 원 이상의 지원규모를 유지함
- 한편, 기업들의 체감경기와 수익성이 악화되고,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는 상황임에도 대기업들은 동반성장 추진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2011년 2분기부터 2013년 1분기까지 8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지속되고, 2010~2012년까지 30대 그룹의 당기순이익이 연평균 12.7% 감소함에도 올해 지원계획을 지난해보다 3.8% 늘리는 등 동반성장 추진에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2) 30대 그룹의 분야별 2012년 협력사 지원실적 및 2013년 지원계획

- 올해 30대 그룹은 R&D 지원이 보증·대출지원 규모를 상회하는 등 협력사 지원의 우선순위가 변화한 점이 특징임
 - 지난해에는 판매·구매지원(28.7%), 생산성향상(22.9%), 보증·대출지원(19.8%), R&D(19.2%), 해외동반진출(6.3%), 인재양성(3.1%) 順으로 조사됐으나, 올해에는 판매·구매지원(28.9%), 생산성향상(23.7%), R&D(20.2%), 보증·대출지원(17.4%), 해외동반진출(6.2%), 인재양성(3.6%) 順으로, R&D 지원이 보증·대출지원을 상회함

- 한편, 올해 30대 그룹의 협력사 지원계획에서 협력사의 경영안정을 위한 판매·구매 지원, 보증·대출지원, 해외동반진출은 전년 대비 0.6% 감소(8,531억 원→8,484억 원)함
 - 지난해 30대 그룹은 해외동반진출에 2011년(320억 원) 대비 약 206.2% 증가한 980억 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99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임
 - 판매·구매지원은 2011년 5,269억 원에서 지난해 4,470억 원으로 약 15.2% 감소하였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4.6% 증가한 4,677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임
 - 한편, 지난해 보증·대출지원은 2011년 2,987억 원에서 약 3.1% 증가한 3,081억 원이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8.7% 감소한 2,812억 원이 지원될 계획임
- 또한, 올해는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향상, R&D, 인재양성 지원이 전년 대비 9% 증가(7,040억 원→7,672억 원)하고, 전체 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45.2%에서 올해 47.5%로 2.3%p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생산성향상 지원은 2010년 1,563억, 2011년 2,188억, 2012년 3,561억 원 등 지난 2년간 연평균 31.6% 증가하였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7.6% 증가한 3,832억 원이 지원될 예정임
 - R&D 지원은 2011년 4,191억 원에서 2012년 2,992억 원으로 28.6% 감소하였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8.9% 증가한 3,259억 원이 지원될 계획임
 - 인재양성 지원은 2010년 268억, 2011년 401억, 2012년 487억 원으로 지난 2년간 연평균 22.2% 증가하였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19.3% 증가한 581억 원이 지원될 계획임

(3) 시사점 및 제안사항

- 30대 그룹의 협력사 지원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간 지속되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경영환경 악화로 협력사 지원의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음
- 30대 그룹은 협력사 지원규모의 절반 이상을 판매·구매지원, 보증·대출지원, 해외동반진출 등 협력사 경영안정에 지원하고 있으나,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생산성향상, 인재양성 분야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대기업의 지원만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뒷받침하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은 기업체질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추진하는 한편, 대기업은 어려운 경제상황일수록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함

I.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최근 경기침체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협력사간의 상생협력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9·29 동반성장 종합대책(2010.9.29)」 이후, 주요 대기업들은 R&D, 생산성향상, 해외동반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 경쟁력 강화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음
- 이에, 최근 3년간 30대 그룹의 협력사 지원실적과 우수사례를 파악하는 한편, 협력사의 자생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보완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2. 조사대상

- 조사대상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2013.1) 중 상위 30대 그룹
 - 공기업·위크아웃기업·외국계 기업 제외하고, 차순위 기업(코오롱, KCC, 영풍 등) 포함
 - 조사응답률 : 30개 그룹 중 25개 그룹 회신(회신율 : 83.3%)

3.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 조사방법 : 주관식 서술을 통한 설문지 조사 실시. 전자메일 조사와 전화 인터뷰 병행
- 조사기간 : 2012. 2. 8~3. 29(50일간)

4. 조사내용

- 30대 그룹의 2012년 협력사 지원실적 및 2013년 지원계획
 - 판매·구매지원, 보증·대출 지원, R&D, 생산성향상 등 30대 그룹의 협력사에 대한 직접 지원 규모(대여성 자금지원 등 간접지원 금액은 조사에서 제외)
 - 30대 그룹의 2012년 협력사 지원사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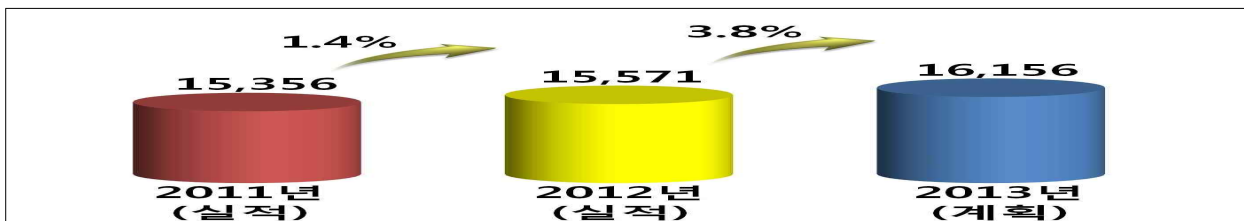
Ⅱ. 조사 결과: 30대 그룹의 2012년 협력사 지원실적 및 2013년 지원계획

1. 30대 그룹의 협력사 지원규모

- 30대 그룹은 지난해 협력사에 2011년보다 1.4% 증가한 1조 5,571억 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3.8% 증가한 1조 6,15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임
- 올해 30대 그룹의 협력사 지원계획이 1조 6,156억 원으로 집계되어 협력사 지원 실적은 2010년 8,922억 원, 2011년 1조 5,356억 원, 2012년 1조 5,571억 원에 이어 3년 연속 1조 5천억 원 이상의 지원규모를 유지함
- 또한, 올해 협력사 지원계획 증가율(3.8%)은 지난해 지원실적 증가율(1.4%)보다 2.7배 높고, 지원규모가 전년보다 약 600억 원가량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30대 그룹의 협력사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 추이(2011~2013년)>

(단위 : 억 원)



- 한편, 주요 대기업들은 체감경기와 수익성이 악화되고,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는 상황임에도 동반성장 추진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600대 기업의 평균 기업경기실사지수(BSI)¹⁾는 105(2010), 96.2(2011), 90(2012)으로 조사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실제로 경기회복 둔화와 함께 수익성이 악화되어 30대 그룹의 당기순이익은 2010년 75조 1,000억 원, 2011년 59조 4,000억 원, 2012년 57조 3,000억 원으로 연평균 12.7% 감소함²⁾
- 또한,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올해 1분기까지 8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올해 경제성장률도 정부 추산 2.3%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당분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30대 그룹의 올해 협력사 지원계획은 글로벌 경기회복 둔화와 내수침체 장기화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지난해보다 3.8% 증가하여 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여 불황을 극복하려는 대기업의 적극적인 동반성장 추진노력으로 평가됨

1) 기업경기실사지수 2010~2012년 조사결과(전국경제인연합회, 2013.5)를 평균하여 산출(실적치의 계절조정치 기준)

2) 공정거래위원회(2013.4), 「2013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지정 현황」

2. 30대 그룹의 분야별 2012년 협력사 지원실적 및 2013년 지원계획

□ 올해 30대 그룹은 판매·구매지원, 생산성향상 분야에 전체의 50%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증·대출지원보다 R&D 지원이 늘어나 협력사 지원의 우선순위가 변화한 점이 주된 특징임

- 지난해 분야별 지원실적은 판매·구매지원(28.7%), 생산성향상(22.9%), 보증·대출지원(19.8%), R&D(19.2%), 해외동반진출(6.3%), 인재양성(3.1%) 順으로 나타남
- 반면, 올해는 판매·구매지원(28.9%), 생산성향상(23.7%), R&D(20.2%), 보증·대출지원(17.4%), 해외동반진출(6.2%), 인재양성(3.6%) 順으로, R&D 지원이 보증·대출지원을 상회함

<30대 그룹의 분야별 협력사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 추이(2010~2013년)>

(단위 : 억 원, %)

	R&D (비중)	생산성향상 (비중)	인력양성 (비중)	보증·대출 지원 (비중)	해외동반 진출 (비중)	판매·구매 지원 (비중)
2010년 (실적)	2,244 (25.2)	1,563 (17.5)	268 (3.0)	802 (9.0)	17 (0.2)	4,028 (45.1)
2011년 (실적)	4,191 (27.3)	2,188 (14.2)	401 (2.6)	2,987 (19.5)	320 (2.1)	5,269 (34.3)
2012년 (실적)	2,992 (19.2)	3,561 (22.%)	487 (3.1)	3,081 (19.8)	980 (6.3)	4,470 (28.7)
2013년 (계획)	3,259 (20.2)	3,832 (23.7)	581 (3.6)	2,812 (17.4)	995 (6.2)	4,677 (28.9)

□ 한편, 30대 그룹의 올해 협력사 지원계획에서 협력사의 경영안정을 위한 판매·구매지원, 보증·대출지원, 해외동반진출은 전년대비 0.6% 감소(8,531억 원→8,484억 원)하였음

- 30대 그룹은 지난해 해외동반진출에 2011년(320억 원) 대비 약 206.2% 증가한 980억 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99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임

- 지난해 해외동반진출 지원이 약 3배가량 급증한 이유는 동반성장지수에 가점사항이 추가되어 해외동반진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2012년 신설된 '동반성장 투자 및 지원' 부문의 가점 1.5점 중 해외동반진출 가점이 0.5점을 차지함

- (해외동반진출 사례) LG전자는 지난해 4월 한국수출입은행과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총 21개 협력사에 858억 원의 대출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현지 사무실을 LG전자 해외 법인 공장 내에 입주시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법률자문·부지 매입 등을 지원하여 협력사의 조속한 현지 적응을 돕는 방식으로 지난해에 1,892억 원의 협력사 매출확대를 지원함

- 판매·구매지원은 2011년 5,269억 원에서 지난해 4,470억 원으로 약 15.2% 감소하였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4.6% 증가한 4,677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임
- 지난해에는 대기업들이 협력사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확대(660억 원 증가)함에 따라 그 상쇄 효과로 내수시장 판로개척 중심의 판매·구매지원이 축소(799억 원 감소)된 것으로 분석됨
- * 실제로 2012년 자산총계 상위 10대 그룹의 총매출 1,018조 6,822억 원 중, 해외매출 비중은 51.16%(521조 1,793억 원)로 2011년보다 2.27%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지난해 보증·대출지원은 2011년 2,987억 원에서 약 3.1% 증가한 3,081억 원이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8.7% 감소한 2,812억 원이 지원될 계획임
- 지난해에는 자금지원 등 협력사의 경영안정 지원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중요하다는 평가대상 기업의 학습효과로 보증·대출지원이 증가하였으나, 올해는 협력사 지원이 생산성 향상, R&D 확대에 변화되어 보증·대출지원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 *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자금지원·납품단가 조정 등 경영안정 지원은 전체 배점의 47%(2012)를 차지함
- (보증·대출지원 사례) 지난해 포스코는 벤처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사업성이 뛰어난 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10주 동안의 전문가 멘토링과 투자 유치의 기회를 제공 하였으며, 지난해까지 발굴한 22개의 벤처기업이 초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등에 총 42억 원을 지원함
- 또한, 올해는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향상, R&D, 인재양성이 지난해보다 9% 증가(7,040억 원 → 7,672억 원)하고, 협력사에 대한 전체 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45.2%에서 올해 47.5%로 2.3%p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생산성향상 지원은 2010년 1,563억 원, 2011년 2,188억 원, 2012년 3,561억 원 등 지난 2년간 연평균 31.6% 증가하였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7.6% 증가한 3,832억 원이 지원될 예정임
- 특히, 지난해 대기업들은 생산성향상 지원을 2011년 대비 1,373억 원(62.8%) 확대하여 공정효율화, 환경개선 등을 통해 협력사의 생산성 제고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 2011년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은 대기업의 29.1%³⁾ 수준임
- (생산성향상 지원사례) SK텔레콤은 지난해 6월, 약 44억 원을 투자하여 'T-open Lab'을 개관 하고, 협력사에 계측기 35대와 스마트폰 200여대 등 Test-bed 장비와 시험공간인 테스트룸 등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협력사가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R&D 지원규모는 2011년 4,191억 원에서 2012년 2,992억 원으로 28.6% 감소하였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8.9% 증가한 3,259억 원이 지원될 계획임
- 지난해 R&D 지원이 1,199억 원 대폭 감소한 것은 대기업들이 성과창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고, 향후 R&D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3) 중소기업중앙회(2013.5), 「2013년 중소기업 위상지표」

- 한편, 해외동반진출과 관련된 가점이 신설되어 해당 부문의 지원이 늘어난 것처럼 R&D 관련 배점 향상 또는 가점 추가로 점수배분이 재조정되면 R&D 지원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임
- (R&D 지원사례) 삼성전자는 지난해 2월 중소기업 25개사로 구성된 혁신기술기업협의회(이하 ‘혁신회’)를 조직하여 소속 기업들에게 기술개발 지원, 공동개발과제 추진, 신제품 개발 참여 등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2010년 혁신회 출범 이후 2012년 말까지 총 47개 중소기업이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통해 5,300억 원의 매출을 창출함
- 인재양성 지원규모는 2010년 268억 원, 2011년 401억 원, 2012년 487억 원으로 최근 2년간 연평균 22.2% 증가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19.3% 증가한 581억 원이 지원될 계획임
- 인재양성 지원은 협력사 임직원의 전문역량 강화에서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우수인재 채용지원까지 그 내용이 점차 다양해지고 지원규모도 늘어나는 추세임
- (인재양성 지원사례) 지난해 현대자동차는 국내 최초로 1차 협력사 305개사가 참여한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서울, 광주, 대구에서 총 3회 개최하여 실제 채용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동반성장관·협력사 미래관 등을 설치하여 협력사의 경쟁력과 기업 가치를 적극 홍보하였고, 이를 통해 협력사가 당초 계획한 1만 명을 50%가량 상회하는 1만 5,000여 명을 채용하는데 기여함
- 아직까지 30대 그룹은 협력사의 경영안정·애로해소 등 시혜적 측면에 50%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는 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생산성향상(23.7%), R&D(20.2%), 인재양성(3.6%)이 전체 지원의 47.5%를 차지하는 등 그 비중이 2011년(44.2%), 2012년(45.2%)에 이어 완만히 증가하고 있음
- 이는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이 경영안정·애로해소 등 시혜적 지원 중심에서 점차 R&D, 생산성향상, 인재양성 등 협력사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분야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함

3. 시사점 및 제안사항

(1) 시사점

- 30대 그룹의 협력사 지원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간 지속되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경영환경 악화로 증가추세가 둔화되는 양상임
 - 30대 그룹 협력사 지원규모는 8,922억 원(2010) → 15,356억 원(2011) → 15,571억 원(2012) → 16,156억 원(2013)으로 3년 연속 1조 5천억 원 이상의 지원규모를 유지함
 - 반면, 전년대비 협력사 지원 증가율은 72.1%(2011) → 1.4%(2012) → 3.8%(2013)로 지난해와 올해 모두 협력사 지원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였음
 - * 30대 그룹의 전년대비 협력사 지원 증가규모 : 6,434억 원(2011) → 215억 원(2012) → 585억 원(2013)
- 30대 그룹의 분야별 협력사 지원실적 중에서 판매·구매지원, 보증·대출지원, 해외동반 진출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나, 최근 R&D, 생산성향상, 인재양성 등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임
 - 협력사 경영안정을 위한 판매·구매지원, 보증·대출지원, 해외동반진출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55.8%(2012) → 54.8%(2012) → 52.5%(2013)로 전체 지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나, 그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임
 - 반면, R&D, 생산성향상, 인재양성 등의 비중은 44.2%(2011) → 45.2%(2012) → 47.5%(2013)로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음

(2) 제안사항

- 협력사의 경영안정보다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기업의 지원이 확대되도록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정부는 R&D, 생산성향상, 인재양성 등 대기업들이 동반성장 니즈에 부합하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현행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협력사 경쟁력 강화 부문의 평가항목을 다양화하고 관련 부문의 배점을 상향하는 한편, 체감도 조사에서 R&D·생산성향상 등에 지원수요가 높은 협력사에는 관련 평가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평가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올해 종료되는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하고, 대기업이 협력사 지원을 목적으로 민간기구에 출연한 재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예컨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는 출연액의 7%가 세액공제되나, 현대중공업·두산중공업·두산인프라코어·STX엔진이 기계산업동반성장진흥재단에 매년 출연하는 20억 원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음
-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지원만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능력을 강화하는 등 기업체질 개선에 주력해야 함
 - 중소기업은 정부나 공공기관, 대기업 지원에 의존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부단한 연구 개발과 혁신활동을 통해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을 성장동력으로 전환시켜야 함
 -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37.1%만이 혁신활동을 수행하며⁴⁾, 정부의 R&D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R&D를 수행하는 제조 중소기업의 비중은 22.6%(2007), 28.9%(2010)임⁵⁾
 - 또한, 좁은 내수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 등을 갖춰나가야 함
 - 스스로의 역량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거나 정부의 해외진출 프로그램, 대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함
- 협력사의 경쟁력이 대기업의 경쟁력으로 연결됨을 직시하고, 대기업은 어려운 경제상황일수록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함
 - 대기업은 적극적인 투자로 경기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영역과 신기술·제품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함
 - 새로운 사업영역, 신기술·제품의 개발은 ‘대기업 매출·수익 증대 → 협력사 지원 증대 → 협력사 경쟁력 강화 → 대기업 경쟁력 강화’의 선순환을 형성하여 대·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4) OECD(2011), 「Innovation Strategies by Firm Size」

5) 중소기업연구원(2012.12), 「중소기업 발전 및 육성전략 수립」

참고문헌

공정거래위원회(2013.4), 「2013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지정 현황」
전국경제인연합회(2013.5), 「대기업 체감 경기, 3개월 만에 부정적」, 보도자료
중소기업연구원(2012.12), 「중소기업 발전 및 육성전략 수립」
중소기업중앙회(2013.5), 「중소기업 위상지표」
OECD(2011), 「Innovation Strategies by Firm Size」